

# 보치아 개인전銅 강선의 “이번엔 金이다”

### 정호원과 팀이른 페어 부문 홍콩과 금메달결정전

### 첫 패럴림픽 결승 진출 “금메달 기회 꼭 잡겠다”

**PARIS 2024**

정호원(38·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과 강선희(47·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혼성페어(스포츠등급 BC3)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확보했다.

지난 2일 열린 여자개인 동메달 결정전(스포츠등급 BC3)에서 브라질의 이바니 카라두를 꺾고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강선희는 개인전 동메달에 이어 첫 금메달까지 바라본다.

1977년생인 강선희는 다소 늦은 나이에 보치아에 입문했다.

정호원과 강선희는 4일(현지시간)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 스테파니아 페란도-로드리고 로메로 조를 상대로 4연전 합계 4-2(3-0-1-1-0-1)로 승리했다.

정호원-강선희 조는 태국을 누르고 올라온 홍콩과 결승전을 치른다.

정호원은 개인전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노린다.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한 강선희는

2000년 교통사고로 지체 장애 1급을 받은 강선희는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다 우연히 보치아를 접했고, 강한 매력에 이끌려 2017년에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강선희는 빠르게 성장했다. 입문 2년 만인 2019년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뽑혔다.

2020 도쿄 패럴림픽 출전권은 획득하지 못했으나, 끊임없이 훈련하며 세



보치아 강선희가 4일(현지시간)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혼성페어(스포츠등급 BC3) 아르헨티나와 준결승전 경기를 펼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계 정상급 선수로 받들음했다.

강선희는 혼성 페어 준결승전 경기가 끝난 후 “첫 패럴림픽에서 결승까지 밟게 됐는데, 금메달 획득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선 정호원과(강원도장애인체육회) 페어(2인조) 종목 금메달을 활약했다. /연합뉴스

## 21년 만에 ‘메달두’ 제의 발롱도르 30인 후보 발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뮌헨)가 나란히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손꼽히는 ‘2024 발롱도르’ 30인 후보 명단에서 빠졌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풋볼은 5일 올해 부문별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팬들의 관심을 끈 남자 후보 30명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역대 발롱도르 최다 수상(8회)에 빛나는 메시와 5차례 수상의 영광을 맛본 호날두가 나란히 명단에서 빠졌다.

‘메달두’ 뿐만 아니라 국내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캡틴’ 손흥민과 ‘철기둥’ 김민재도 30인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민재는 2023년 발롱도르 30인 후보 명단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빠졌고, 손흥민은 2019년과 2022년에 두 차례 후보에 들었지만 올해에도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모두 빠지면서 발롱도르 30인 명단에는 아시아 출신 선수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발롱도르 30인 명단에는 유로 2024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스페인과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이 각각 6명씩 포함돼 대세를 이뤘다.

2024 발롱도르 수상자는 현지시간 10월 28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5일 열린 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D조 2차전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경기. 김은영이 베네수엘라 공격수 마리아넬라 히메네즈와 볼을 다투고 있다. /AFP=연합뉴스

## 박윤정호 ‘월드컵 16강 빨간불’

### U-20 여자 월드컵, 베네수엘라전 무승부...최강 독일과 최종전서 16강 티켓 도전

한국이 2024 국제축구연맹(FIFA) 콜롬비아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두 경기(1무 1패)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해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팀은 5일 콜롬비아 보고타의 메트로 폴리타노 데 데초 경기장에서 열린 대

회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베네수엘라와 0-0으로 비겼다.

1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 0-1로 패했던 한국(승점 1·골 득실 -1)은 베네수엘라(승점 1·골 득실 -3)와 나란히 1무 1패가 됐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조 3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오는 8일 2승으로 16강 진출

을 확정할 독일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16강 진출의 희망을 살릴 수 있게 됐다.

21개국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 조별리그를 치른 후 각각 1·2위와 조 3위 6개국 중 상위 4개국이 16강에 올라 우승을 다툰다.

한국은 오는 8일 2승으로 16강 진출

## (사)목포스포츠클럽, 2024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축구대회 성료

### 스포츠로 꿈에 날개를 달자

특히 (사)목포스포츠클럽은 대회 종목과 더불어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운영,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사진)

문화행사는 FC목포 프로축구선수 초청 토크콘서트, 축구지도자와 함께하는 진로상담, 친환경이벤트인 개인물병 디자인 및 리필 사용하기와 플로깅 이벤트, 축구 볼링·축구속도 측정, 축구 프로필 촬영, 축구 킥 성공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대회에 참가한 나지우 학생(목포고대부설초 3년)은 “진로상담 부스에서 FC목포 축구선수들이 축구에 대해 친절하게 얘기해주셔서 너무도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포스포츠클럽 회장은 “지역의 풀뿌리인 우리 유·청소년들이 이색 축구대회인 이번 대회를 통해 실력을 떠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즐기는 대회가 돼 뜻깊었다”며 “(사)목포스포츠클럽은 앞으로도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전남도체육회가 지난 6월 대한체육회의 2024 청소년스포츠한



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를 지원 받아 치러졌다.

한편, 목포시의 유일한 지정스포츠클럽인 (사)목포스포츠클럽은 지역 풀뿌리 유·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축구, 배드민턴, 농구, 풋살, 파크골프 등의 종목은 취미반부터 전문선수반까지 선수단 체계의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희중기자



2024 전국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광주시체육회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시체육회 남자스쿼시팀 전국실업선수권 단체전 우승

### 2019년 전국체전 이후 5년 만

광주시체육회 남자 스쿼시팀이 2024 전국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올렸다.

우창욱·고영조·오성학으로 팀을 꾸린 광주시체육회 남자 스쿼시팀은 최근 경북 김천 스쿼시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이자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팀 충북체육회를 2-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체육회는 16강에서 세종시에 3-0, 8강에서 경북도체육회에 2-1, 4강에서 경남도체육회에 2-1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광주시체육회 남자 스쿼시팀은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우승 이후 5년 만에 단체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박한솔 광주시체육회 스쿼시팀 감독은 “최근 5년 동안 코로나와 선수들의 부상 등으로 팀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올해 105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치러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광주시체육회 효자 종목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올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광주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세플러+맥길로이 vs 디샬보+캡카, 12월 맞대결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LIV 골프의 간판선수가 맞붙는다.

ESPN은 스코티 세플러(미국), 로리 맥길로이(북아일랜드)와 브라이언 디샬보, 브룩스 캡카(이상 미국)가 오는 12월 중순 라스베이거스에서 18홀 경기에 나선다고 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대회 방식과 코스, 그리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식 대회가 아닌 유료 TV 중계용 이벤트를 대하지만 사실상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 4명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4명이 PGA투어와 LIV 골프의 간판선수로서 PGA투어와 LIV 골프의 자존심 대결의 성도 가미돼 흥미를 더할 전망이다.

LIV 골프는 PGA투어에 라이더십 형식의 대항전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번 이벤트 대회는 TNT가 중계한다. TNT는 특급 선수가 참가하는 이벤트성 골프 대회 단골 중계사다.

‘더매치’라는 이름으로 2018년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이상 미국)의 맞대결 중계가 시작되었다.

맥길로이, 디샬보, 캡카도 ‘더매치’ 시리즈에 참가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전남도체육회, 도내 청소년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무안초에서 운영 중인 ‘행복나눔교실’ 핸드볼 프로그램. <전남도체육회 제공>

## ‘행복나눔교실’ 참여 만족도 ‘↑’

전남도체육회가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2024 행복나눔교실’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5월 대한체육회 공모에 참여해 사업비 8천2백만 원을 확보 ▲영광초(씨름, 풋살) ▲무안초(핸드볼) ▲해제초(매직테니스) ▲장흥초(피구) ▲오성초(수영) ▲함평초(피구) ▲신안해양과학고(배구) 등 7개교에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는 각 종목별 스포츠용품 기증과 전문강사가 지원되며 총 20회의 강습과 부대프로그램을 운영, 신체적 교육 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련 진

로교육을 하는 등 학생들에게 성숙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복나눔교실은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조성에 큰 도움을 줘 참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꿈나무들에게 보다 나은 스포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공모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행복나눔스포츠교실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스포츠 참여 기회를 갖게 돼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